



회원대학 소식

● 건국대

건국대(총장 오명)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WiBro-무선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 무선단말기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캠퍼스(U-캠퍼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국의 쓰촨대, 충칭대, 쓰촨 외국어대 등 자매결연을 한 대학 4곳에 재해복구성금 1800만 원을 전달했다.

● 경남대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미국 페어리디킨슨대(FDU)와 공동 운영기로 한 경남대생의 '복수학위제도'와 FDU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Two World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협의를 최근 가졌다고 5월 7일(수)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를 FDU의 프로그램 실무책임자 스타치오 박사가 직접 방문해 경남대생의 '복수학위제도'는 오는 9월부터, 미국 학생들의 'Two World 프로그램'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기로 대학 측과 합의했다. 경남대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수학위제도'는 학생 선택에 의해 30학점 이상을 미국 FDU에서 직접 이수하거나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수하면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계명대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2008년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한국어 연수 기관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계명대 국제교육센터는 "학부과정을 졸업한 후 대학원으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1년간 한국어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위탁 연수 기관 선정, 5월 26일(월) 국제교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9월 1일(월)부터 1년간 50명의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 위탁을 맡게 된다.

● 고려대

이기수 고려대(총장 이기수) 총장은 개교 103주년 기념식을 맞아 5월 5일(월) 오후 2시 100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신입생 학부모 400명을 초청해 '학부모와 총장이 만났을 때' 특강을 했다.

고려대 총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기수 총장은 영어 외에 최소 2개 국어 구사 능력 배양과 40%에 도달한 전공 영어 강의, 다양한 맞춤형 외국 교환학생·방문학생 프로그램 등 고려대가 제공하는 명품 교육기회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동국대

동국대(총장 손동진)는 대만 국립고웅사범대학을 6월 12일~15일에 방문하여 양교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은 상호존중,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학술 및 인적 교류를 진행하며, 우호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학술분야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했다.

● 대구가톨릭대

미국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자 대구가톨릭대(총장 서경돈)를 방문한다.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재학생 10명은 5월 7일(수) 대구가톨릭대에 도착해 5월 8일(목)에 개최되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5월 14일(수)까지 7일간 대구가톨릭대가 준비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Global Leadership Program, GLP 연수)'에 참여했다.

● 목원대

목원대(총장 이요한)는 5월 25일(일)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 통합 주요 거점대학(ABT·Active Brain Tower)'으로 지정받았다.

목원대는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이민자 사회 통합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대학 20개 중 대전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목원대는 법무부 지원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민 정책 관련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부경대

부경대(총장 목연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119봉사단이 출범했다. 부산 남부소방서와 공동으로 5월 30일(금) 오후 용당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부경대 119 봉사단 발대식 및 체험실습 행사를 열었다.

부경대 119봉사단에는 부경대 안전공학부 300명 가운데 부산소방학교의 기초 교육을 받은 2학년 학생 54명이 봉사단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홍보활동과 소방교육을 실시하며 천재지변 시 소방관을 돕는 도우미 활동도 하게 된다.

서울대

서울대(총장 이장무)는 로스쿨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법대 정원을 활용해 자율전공 학부대학을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는 그간 법대 정원 활용과 관련해 학부대학 설치와 단과대학으로 인원을 분할 배정하는 것을 놓고 고민해 왔으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학부대학 설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5월 25일(일) "법대 폐지에 따른 잉여 모집인원을 활용해 광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부대학인 스페셜칼리지(가칭)를 신설해 오는 2009년 정시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은 로스쿨 잉여정원 활용 안을 6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여대

서울여대(총장 이광자)는 안철수연구소

와 6월 16일(월) 교내 행정관 중회의실에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다.

이번 산학협력 체결은 정보보호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정보보호분야 실무형 교육 인증 프로그램 ASPECT (AhnLab-SWU Program of Education and Certification on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를 공동개발 운영한다.

또한 서울여대는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위탁 체결 협정식을 5월 7일(수) 오후 4시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가졌다.

세종대

세종대가 5월 13일(화) 새 학교 상징 UI (University Identity) 선포식을 가졌다.



세종대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캠퍼스에서 학생, 교수,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세종대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담긴 기존의 교표를 유지하면서, 세종인의 미래 지향적이고 젊은 열정을 새롭게 표현하는 새 UI를 선보였다. 새 UI는 유연한 곡선의 사각형 형태로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육성해주는 장(場)으로의 세종대를 표현하고, 가운데에 '세종'을 가로세로로 풀어 표기, 한글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세종인의 남다른 창의성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송실대

송실대(총장 이호계)는 6월 5일(목) 총장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IT대학(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을 방문해 이 대학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6월 4일(수) 밝혔다. 호치민 IT대학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에 설립된 베트남 국립대학이다.

이호계 총장은 또 작년 12월 SK텔레콤과 공동 설립한 'SKT-SSU IT교육센터' 제1기 수료식에도 참석해 현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안양대



안양대(총장 김승태)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새 학교 상징 UI(University Identity)를 마련해 5월 16일(금) 교내 운동장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새 UI는 태양의 열정과 민들레의 강인함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취적인 안양대를 표현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과 함께 아리비전센터 기공식도 진행된다.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지어질 아리비전센터에는 동아리실과 보건진료실·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연세대

연세대(총장 김한중)가 5월 10일(토) 대강당에서 창립 12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김한중 총장은 기념사에서 "신촌, 원주, 송도 등 국내 최초로 3개의 캠퍼스를 각각의 특성에 맞춰 운영, 연세대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2010년 개교하는 송도 캠퍼스는 연구와 국제화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촌은 종합적이고 교육중심, 원주는 환경 친화적인 캠퍼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연세대의 상징인 백양로를 2011년까지 지하공간을 개발, 차 없는 백양로, 문화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대

영남대(총장 우동기)는 한국 디자인진흥원이 주도하는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월 7일 밝혔다.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사업'은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한 뒤 우수학생을 해당 기업에서 우선 채용하는 기업맞춤형 디자인 전문가 육성 및 채용 프로그램이다.

인하대

인하대(총장 홍승용) 대학원은 5월 19일(월) 대학 본관 주변 광장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축제 '제1회 크로스 오버 컬처 페스티벌'(Cross Over Culture Festival)을 열었다. 행사는 30여개 국 65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학생과의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의 음식 소개, 한국 전통 민속놀이 행사, 각국 문화 상품 판매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대

전북대(총장 서거석)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투무르 어치르(Tumur Ochir) 차관과 몽골국립농업대학 밤바(Byambaa) 총장 등 몽골 주요 인사들과 5월 9일(금) 학술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대는 5월 21일(수)부터 5월 26일(월)까지 필리핀 산세바스찬 대학교를 비롯해 딜리만대학교, 라살대학교, 세부대학교, 산호세대학교 등 필리핀 주요 5개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간 학술 교류협정을 맺고 구체적인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밖에 전북대(총장 서거석)는 (주)동양제철화학과 손을 잡고 인·물적 교류 등 수준 높은 산학협력 관계를 이뤄나가기로 약속했다. 5월 5일(목) 전북대

대학본부 8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총장과 (주)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 박준영 공장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교류협정을 맺었다.

전주대

전주대(총장 이남식)는 2008학년도 하계 해외탐방(Catch the world)을 실시한다. 6월 20일 오후 4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08 해외탐방 발대식>에서 유럽 14팀50명, 아메리카(미국) 5팀16명, 아프리카 3팀 11명, 동남아시아(타이완) 1팀 4명, 아시아(일본) 1팀 3명 총 24개팀에 84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어학연수 30명, 교환학생 20명 등과 함께 총134명이 출국한다. 전주대는 팀별탐방, 해외봉사활동, 해외취업체험학습,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억원 이상을 지원해 해외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

제주대

제주대(총장 고충석)는 2013년 '전국 명문대학 20위' 진입을 목표로 한 '제3창학'을 선언했다.

5월 22일(목) 기본에 충실한 대학, 제주를 선도하는 대학, 명문 20위 대학, 자랑스러운 글로벌 대학 등 4대 비전을 실현할 7대 도전과제와 함께 취업률 80%, 발전기금 1000억 원 확보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밝혔다.

제주대는 우선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봉사과 공동체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자격증·실무전산능력·외국어능력 분야에 '3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조선대

조선대(총장 전호중)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주역, 동북아 중심 대학이라는 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 2015'를 확정했다.

'장기발전계획 2015'에 따른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은 'Pride Chosun-창조의 중심, 지역의 희망, 미래의 리더'이다.

2007년 11월 20일 발전전략추진위원회(위원장 박진석 교수)를 구성하여 6개월여 작업 끝에 최종 확정된 이 장기발전계획은 조선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2010년 동북아시아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7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선대학교의 비전을 설정했다.

7대 경영전략은 △투명한 경영 △경륜과 패기의 조화 △효율적 재정운용 △교육과 연구의 균형적 발전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선도 △아름답고 편리한 캠퍼스 구성 △구성원 복지향상이다. 이 7대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조선대학교 비전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인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충남대

충남대(총장 송용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분교 설립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4일(수) 충남대에 따르면 5월 31일(토)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송용호 총장이 LA에서 분교 설립을 위한 교육수요와 법적 문제 등을 파악하고 현지 동창회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 앞서 대학 측은 해외분교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100여만의 교민이 있고 교육수요가 큰 LA를 분교 설립 최적지로 결정했다. 또 LA분교를 충남대병원과 연계해 간호사 등 보건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특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호남대

호남대(총장 장병완)은 중국 광둥성 백운대학과 '1+4' 학부 예과과정 합작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2일(목) 호남대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호남대 장병완 총장과 백운대 사가도 이사장은 '1+4' 학부 예과과정 합작프로그램 진행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류의 협력의 폭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정병석)안에 설립된 학교기업이 '대박 행진'을 하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2004년 창립된 '에스이텍'(대표 장영철/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로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슬러리)을 정제해 그 속에 포함된 연마재와 냉각유를 재생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일본의 세계적 전자업체인 샤프전

자도 실패했던 프로젝트다. 에스이텍은 이 재생물을 반도체 관련업체에 판매해 매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정제기술이 없어 그대로 폐기하거나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로열티도 없고 재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을 캐내는 셈이 됐다.

직원은 8명에 불과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3억~4억 원, 2006년부터는 2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는 30억~40억 원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매출이 늘자 회사 측은 학교에 매년 8000만 원의 발전기금도 내고 있다.

● 한국외대

한국외대(총장 박철)는 2008년 5월 22일(목) 본관 이덕선 회의실(203호)에서 국립 인도네시아대학 총장(Gumilar Rusliwa Somantri)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박철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류협정 갱신을 통해서 양교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고 협력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외대는 5월27(화) 본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쿠웨이트대학교(총장 압둘라 술레이만 알 푸하이드 Dr. Abdullah Sulaiman Al-Fuhaid)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 한국항공대

한국항공대(총장 여준구)는 개교 56주년을 맞이하여 '항공우주의 날'로 정하고, 그 기념행사를 지난 5월 29일(목) 일산 KINTEX에서 개최하였다.

※회원대학 소식 게재 신청
infor@kcue.or.kr

신임총장 프로필



경일대

- 성 명 : 이남교
- 출생년도 : 1947년
- 학 력 : 일본아시아(芦屋)대학
교육학박사

- 주요경력 : 서울 중부교육청 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 영사
- 임 기 : 2008. 6. 1 ~ 2012. 5. 31



계명대학교

- 성 명 : 신일희
- 출생년도 : 1939년
- 학 력 : Princeton 대학교 Ph.D.
(독일문학전공)

- 주요경력 : 아시아 기독교대학연맹(ACUCA) 회장, 한국·폴란드 협회(PRO POLONIA) 회장,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스웨덴 명예영사,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이사장, 한국기독교대학협의회 회장,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총장, 폴란드 명예영사,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이사장, 미 육군성 문화대사
- 임 기 : 2008. 7. 6. ~ 2012. 7. 5.